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선교 지향> 봉헌된 남녀 수도자들이 힘을 내어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11 월 4 일 주일 부터 Daylight saving time 이 끝납니다.

[잭슨빌]

- 미사책 주문 11 월 부터 5 월까지 30 불 전례부장 최영선 마리아 자매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1 월 4 일(주일)에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친교후에 연도와 묘지 참배가 있습니다.
- 11 월 18 일(주일) 미사후에 사목회장 선출을 위한 신자총회가 있습니다.
- 세바스찬 형제님과 율리안나 자매님께서 다음달에 메릴랜드로 이사 가십니다. 순조로운 진행이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수요일 미사및 성 금요일 미사와 성체현시 있습니다.

[게인즈빌]

- 전체식사가 오늘 미사후에 있습니다. 수고하신 성모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11 월 3 일 토요일 4 시에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11 월 평일 미사는 11 월 9 일 에만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138.50	-	-	-	\$138.50
잭슨빌	\$219	\$650	-	-	\$869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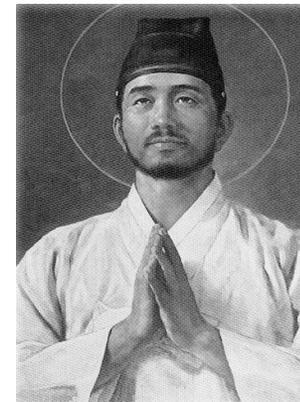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換)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어인수 안토니오 (904) 866-0708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 오늘의 묵상

예레미야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인도합니다. 남은 자들 중에는 눈먼 이와 다리저는 이, 아이를 뱀 여인이 있어서 하느님의 도움이 더 절실합니다.

예언자는 역경을 견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 중에 환호성을 올리는 날’을 기다리도록 이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눈먼 거지의 부르짖음은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가문에서 나올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거지는 주변의 꾸중과 창피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구세주의 자비를 외쳐 댁니다. 눈먼 이가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머슴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이사 35,5) 하고 예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신지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걷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루카 7,22)

눈먼 거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신앙인을 표상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둠의 나라에서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서 우리의 삶은 빛과 은총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눈먼 거지의 치유는 우리가 받을 자비로운 구원을 미리 보여 주는 것입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 연중 제 30 주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31,7-9

<눈먼 이와 다리저는 이를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화답송] 시편 126(125),1-2 ㄱ. 2 ㄷ. 3-4-5.6(◎ 3 참조)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서] 히브리서 5,1-6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0,46 ㄴ-52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10/27)	고승희 엘리자벳	성충현 베드로	남궁은미 루치아	-
	잭슨빌 (10/28)	한상신 디나	서정원 헬레나	이상미 미리암	함동진 안드레아 함두순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11/3)	최건화 안젤라	천창준 레오	천하일 미카엘	-
	잭슨빌 (11/4)	윤미임 테레사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이교순 카타리나 이문자 모니카

###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220	602	436	670
잭슨빌	452	215	188	234